

法傳習(湖西地方)

- 明宗實錄卷 3 金盆慶：中國式 手轉 水車製造 八道에 頒布
- 壬辰倭亂 李參平：日本에 唐臼普及
- 孝宗實錄卷 4 孝宗：燕京，潘陽에서 目擊한 水車 模型 10具를 八道를 分送試用
- 肅宗實錄卷 8, 34 左議政 李世白：倭水車上疏 (沈槲各邑에 試用)
- 英祖(1748, 1764 年) 通信使 조명채, 조엄：淀城水車에 非常한 關心
- 正祖實錄卷 16 吏曹判書 徐浩修：龍尾車八道에 利用 勸獎
- 正祖實錄卷 42 李宇炯：龍尾車製造上疏
- 正祖實錄卷 50 鄭始元：西洋系 水車의 採用 上疏

新月城(新羅王宮)의 文武王代 創造可能性：佛敎의 風水地理說의 例

전 서울대 南 天 祐

三國史記에 따르면 처음의 신라王宮은 紀元前 32년 始祖王때에 京城인 金城에 지었고, 다음의 王宮은 서기 101년 婆娑王(5代王)때에 지어 “月城” 또는 “在城”이라 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을 뿐 그 이후에 王宮을 또다시 新築하였거나 또는 移轉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三國史記 제34卷 地理條에는 또한 “新月城 北쪽에 滿月城이 있으며 後代王들이 이 兩月城에 많이 居處하였다”라고도 말하여 月城은 1개소가 아니라 2개소가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2개의 月城의 존재사실을 말해 주는 “新月城” 또는 “滿月城”의 呼稱은 이 句節 이외에는 없으며 다른 곳에서는 모두 “月城”이라고만 부르고 있다. 또 現在의 半月城址는 그 모양이 초생달의 모양이므로 “新月城”과 “月城”에 대하여서는 모두 半月城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라 여겨지고 있으나 “滿月城”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에 대해서조차 疑問이 제기되고 있으며, 婆娑王 이후에 王宮이 또 다시 創造되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文武王代에 새로운 月城이 또다시 創造된 것으로 여겨진다.

三國이 統一되고 11년 후에 해당하는 三國史記 文武王 19년(679년)條에는 “二月，重條宮 闕頗極壯麗，秋八月，創造東宮 始定內外諸門額號”라는 記事가 있다.

여기의 “東宮”은 일반적으로 “太子宮”의 뜻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또는 雁鴨池의 臨海殿이 그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으로는 이 기사야말로 宮闕 內에서의 增築이 아니라 독립된 新宮의 創造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며, 여기의 “東宮”은 東쪽에있는 “王宮”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1. 太子宮은 당연히 원래부터 있었을 것이므로 새삼스럽게 “創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2. 가령 太子宮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의 增築이나 改築이라면 마땅히 그 前(2月)에 施行한 “婆極壯麗”하였다는 본격적 重修에 포함되어 있을 직하다.

3. 太子宮을 增築한 정도로서는 “創造東宮”은 표현이 너무 거창하며, 또 가령 “創造東宮”에 대해 “太子宮을 새로 지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오는 “始定內外諸門額號”의 구절은 타당성 있게 설명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舊宮闕 外部에 독립적으로 새로 지은 本格的 宮闕이 아니고서는 額號가 未定인 內外諸門이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

이상의 점으로 미루어 上記 記事는 新王宮의 創造事實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보아야 옳다. 在來의 王宮도 자못 壯麗하게 重修하여 사용은 하였으나 그러한 規模만으로는 三國統一을 이룩한 시대에 걸맞는 王宮의 규모에는 이미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本格的王宮을 새로 지은 것이며 그것이 舊宮에 대해 東쪽에 있었다는 뜻이다.

한편 新宮의 地形은 新月形이므로 新宮의 名稱도 또한 月城이라 부르게 되어 결국 新舊 2개의 月城이 생겼으므로 新(새로지은)月城과 區別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舊月城을 北宮 또는 滿月城이라 呼稱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새로 지은 月城에 대하여서는 新月城이라는 呼稱보다는 “月城” 또는 “在城(王이 居處하고 있는 月城)이 더 選好되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면 舊月城(滿月城)의 위치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나로서는 半月城 北쪽에 위치한 北川邊의 殿廊址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한다. 즉 上記 “東宮”은 “南宮”의 誤記가 아닐까 한다.

近年에 이르러 古代王宮들이 각기 靈山 山頂으로부터 西北30°線上에 위치하고 있음이 밝혀져 있다. 日本人 大知岩雄¹⁾씨에 따르면 慶州의 半月城은 狼山 山頂으로부터, 公州의 公山城은 明德山 北峰 山頂으로부터, 扶餘의 扶蘇山城은 太祖峰 山頂으로부터, 日本의 難波宮址는 高安山 山頂으로부터, 日本의 傳板蓋宮址는 多野山 山頂으로부터, 그리고 日本의 藤原宮太極殿은 破裂山 山頂으로부터 각각 西北30°線上에 놓여 있으며, 그밖에도 많은 古代王陵들이 靈山 山頂으로부터 西北30°線上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도 일종의 明堂의 方位線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자세한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게 되겠거니와, 우선 결론만을 미리 말한다면 이것은 佛教의 明堂의 方位線인 것이다.

한편 新羅王室에서 처음으로 佛教를 받아들인 것은 法興王(23代) 때이므로 婆娑王(5代王)이 月城을 지은지 數世紀 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半月城址가 佛教의 明堂 方位線에 있다는 사실은 앞에서의 나의 주장과 같이 이것이 원래의 月城址가 아니라 佛教傳來 이후에 새로 選定된 王宮址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면 西北 30° 方位線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佛教의 十二支緣起思想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新羅王陵 주위에는 十二支獸首人身肖像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쥐, 소, 범, ...등 12마리 동물의 얼굴로 표시되는 十二支獸首人身肖像의 由來는 무엇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論文을 발표한 바 있다.²⁾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佛教의 기본교리인 輪廻思想에는 十二支緣起라 불리우는 12단계의 緣起(또는 因緣)가 있으며 그들은 「無明, 行, 識, 名色, 六處, 觸, 受, 愛, 取, 有, 生, 老死」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2. 十二支獸는 十二支緣起에서 山來된 것이며 각 緣起들을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상징하고 있다.

- 1) 어두움을 좋아하는 쥐는 가장 어두운 方向인 北쪽에 배치되어 있으며 “無明”을 상징하고 있다.
- 2) 소는 일꾼이므로 “行”을 상징하며,
- 3) 범은 영특하므로 “識”을 상징하며,
- 4) 토끼는 嬌態가 있으므로 “名色”에 알맞고(名色은 “名”과 “色”을 말하며, “色”에는 “異性”이 포함된다).
- 5) 龍은 감각기관이 가장 잘 발달한 동물이므로 “六處”에 알맞고(六處란 6가지의 감각기관을 말한다),
- 6) 범은 항상 온몸을 땅에 接하고 있으므로 “觸”에 알맞고,
- 7) 말은 사람을 태워 주므로 “受”에 알맞고,
- 8) 羊은 雌雄간의 愛情이 두터우므로 “愛”에 알맞고,
- 9) 원숭이는 무엇이건 붙잡기를 좋아하므로 “取”에 알맞고,
- 10) 닭은 배속에 알이 있으므로 “有”에 알맞고,
- 11) 개는 강아지를 잘 낳으므로 “生”에 알맞고
- 12) 돼지는 언제 잡아 먹힐지(죽을지)모르는 몸이므로 “老死”에 알맞다.

이와 같이 각 동물은 각 緣起를 비교적 잘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이상과 같이 상징되는 동물의 배치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없음은 확률계산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王陵 주위에 배치되어 있는 十二支獸首人身肖像의 뜻은 王陵에 대한 단순한 守護神의 뜻이 아니라 十二支緣起의 각 단계를 두루 거쳐

서 死者가 來世에는 보다 더 祝福된 人生으로 태어나기를 祈願하는 뜻이라 생각될 수 있다.

또 나는 石佛寺의 法堂(지금의 吐含山 石窟)이 釋伽如來가 十二支緣起思想을 說法하고 있는 場面으로 꾸며진 특별한 法堂임을 밝힌 바 있다.³⁾ 이러한 것들은 新羅의 社會가 十二支緣起思想을 대단히 중요시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 하겠다.

한편 十二支平面을 놓고 생각할 때에 西北 30° 方向은 “生”線起의 方向이다.

또 각 方向의 線起들을 “古”과 “兎”으로 구분해 보면 그 중에서 가장 吉한 方向으로서는 “生”보다 더 나은 방향은 없으며, 그 다음으로는 “有”, “取”, “受” 정도의 순서가 된다.

그러므로 上記와 같이 佛教傳來 이후의 王宮의 위치가 모두 靈山 山頂으로부터 “生”線起 方向에 있다는 사실은 일종의 佛教의 風水地理說에 의한 位置選定이라고 보아야 한다.

風水地理說과 관련하여 한가지 興味있는 문제가 있다.

脫解王(昔氏, 4代王)陵은 吐含山 山頂으로부터 西北30°線上에 있다. 한편 脫解王은 西紀 80년에 죽었으므로 佛教의 傳來보다 數世紀 前의 일이다.

그러나 三國遺事를 보면 死後 600년이 지난 文武王代에 脫解王陵을 移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西紀 680년 3월 15일 文武王(金氏) 꿈에 무섭게 생긴 脫海王의 귀신이 나타나 自身의 陵을 吐含山에 옮기라고 命하였으므로 그 命에 따라 移葬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前記 “創造 東宮” 한 바로 다음 해의 일이며 文武王이 죽기 前해의 일이다.

죽은지 600년이 지나서 갑자기 귀신으로 꿈에 나타났다는 脫解王도 그렇거니와 그 꿈의 命에 따라 27代 先王의 陵을 실제로 移葬하였다는 文武王의 이야기도 좀처럼 납득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나 上記와 같이 脫解王陵이 佛教의 明堂 자리에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三國遺事』의 기록을 안민기도 또한 어렵다.

한편, 脫解王은 風水地理에 精通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三國遺事와 三國史記를 중

합해 보면, “초생달 모양으로 생긴 楊山 밑의 瓠公의 집터를 바라보니 그곳이 吉地이기에 거짓 꾀를 내어 그 집을 빼앗아서 살았고, (그러하여 王이 되었으며), 후에 그곳이 月城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推理해 볼 수 있다.

1. 脫解王이 瓠公으로부터 빼앗았다는 그 吉地의 집터가 현재의 半月城址였다.

2. 文武王代에도 그곳은 脫解王이 살던 특별한 吉地로서 잘 알려져 있었으며, 그곳은 공교롭게도 佛教의으로도 또한 吉地였으므로 文武王은 그곳에 王宮을 지었다.

3. 文武王 自身은 吉地에 살게 되어 滿足스러웠으나, 반면에 元來 그곳에 살고 있던 脫解王의 後孫들을 그 吉地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居케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땅의 元 主人인 脫解王의 영혼이나마 달래주기 위해 王陵을 佛教의 明堂 자리로 移葬하였는지도 모른다.

가령, 死者로부터 吉地를 빼앗았을 경우에 만약 그에 대한 補償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吉地를 주며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4. 사실 三國遺事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즉 뼈를 부수고 塑像을 만들어 처음에는 宮闕 안에 모셔 두었더니 얼마 후에 神이 또 다시 命하여 吐含山에 奉安하였다.”

즉 死後 600년이 지난 脫解王의 身骨은 塑像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러나 바로 移葬地로 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宮闕 안에 모셔두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屍身을 宮闕에 다시 머물게 한 것도 脫解王이 그 터의 元 主人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가 아니고서는 원한을 풀어 줄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三國遺事는 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나라의 제사를 끊이지 않으며(故至今國祀不絕), 脫解王을 東岳神이라 한다.”

한편 三國史記를 보면 移葬한 바로 다음 해인 神文王元年(681년)에 “本彼宮”이라는 職制가 새로 설치되어 7人의 人員이 배정되어 있다. 그

런데 新羅六部 중에서 本彼部는 昔氏部이므로 “本彼宮”은 昔氏宮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혹시 昔脫解(神)宮(또는 祀堂)이 새로 생겼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故至今國祀不絕”이라고 말한 三國遺事의 上記 내용을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 1) 大和岩雄, “韓國의 王城과 王陵의 위치”, 「東아시아의 古代文化」 제25號(1980), p. 90.
- 2) 南天祐, “石窟法堂의 敎理의 解釋”, 「歷史學報」 제111輯, 1986, p. 1.
- 3) 註 2와 동일

王立科學아카데미의 閉鎖와 過激派

서울대 成映坤

1793년 8월 8일의 國民公會法令은 1666년 創立 이래 프랑스科學界를 지배해 온 王立科學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s sciences)의 解體를 가져왔다. 이 法令의 발표를 앞두고 과학아카데미의 옹호자들은 다른 아카데미들을 희생시키면서라도 科學아카데미를 共和國의 教育體制 속에 편입시켜 구해보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모든 學術아카데미들의 閉鎖를 지시한 이 法令 속에 科學아카데미의 잠정적 존속을 위한 例外條文을 삽입할 수 있었으나, 이 條文은 곧 삭제되고 科學아카데미도 다른 아카데미들과 마찬가지로 閉鎖되었다. 啓蒙時代 이래의 科學에 대한 존중과 科學아카데미가 革命政府에 의해 위임받은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공통의 舊體制의 惡習을 척결한다는 過激派의 意志가 결국 승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科學아카데미의 閉鎖와 過激派의 意志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아카데미들에 대한 탄압은 자코뱅政權의 理想主義와 恐怖政治, 그리고 平等에 대한 大衆의 갈망이 함께 표출된 결과였다. 특히 만만찮은 옹호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國民公會가 科學아카데미의 閉鎖를 최종결정한 데는 그 特權과 영

향력에 대해 계속 공격해 온 팜플렛과 신문의 영향이 컸다. 이런 공격은 革命의 시작과 함께 극심해졌지만 사실상 科學아카데미에 대한 反感은 革命 훨씬 전부터 시작된 뿌리깊은 것이었다. 이 反感과 공격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공격은 科學에 흥미깊은 아마튜어들, 특히 科學아카데미의 會員이 되려다 좌절한 사람들로 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경우에 따라서 科學아카데미는 ‘사이비科學’의 확산을 막고 아마튜어들의 誤謬를 지적하는 ‘科學의 護民官’ 역할을 감당해 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러시아 등 유럽대륙에 산재한 유사한 科學團體들을 선도, 지배하면서 18세기 프랑스科學界가 영국을 앞질러 세계제일임을 자부케 한 科學아카데미로서는 당연히 할 바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科學아카데미의 特別委員會들로부터 ‘사이비’로 규정된 사람들—예를 들어 메스메르(Friedrich Anton Mesmer)나 마라(Jean-Paul Marat)—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었고, 따라서 그들에게 科學아카데미는 科學의 발전을 오히려 저지하는 보수적 集團으로 비칠 수 있었던 것이다.

두번째 종류의 공격은 技術者나 手工業者들로부터 비롯되었다. 技術進歩를 위해 政府에 助言한다는 자체의 권한규정은 科學아카데미로 하여금 프랑스 產業界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만들었다. 특히 政府의 위촉을 받아 特許權 審査를 담당함으로써 科學아카데미는 手工業者들을 지배, 감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새로운 發明을 審査할 수 있다는 말인가? 數學과 科學法則에 대한 시험으로 새로운 發明을 한 技術者들의 천재성을 훼손하는 것이 과연 무엇에 근거한다는 말인가?”하는 식의 불만이 「技術 및 手工業 中央會誌」(Journal du point central des arts et métiers) 등에 실려 手工業者들과 그에 동조하는 知識人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이런 불만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審査를 받는, 특히 불합격판정을 받은 手工業者들의 분노와 自尊心의 손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